



‘폭우로 인한 맨홀 추락 막자’ 안전망 점검 광주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광주 북구 도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설치한 맨홀 추락방지 안전망 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 제공

국내 1호 화순탄광 118년 만에 역사속으로 지역 경제계 큰 버팀목 사라져...폐광 후속조치 필요

대한민국 1호 탄광으로 지역경제계의 큰 버팀목이었던 화순탄광이 오는 30일 폐광한다. 광업권이 처음 등록된 이후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체산업 개발 등 폐광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화순탄광의 반자리를 메우는 데 한계가 느껴진다. 118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만큼 기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첫 단계로 오는 30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국내 1호이자,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이었다. 1905년 4월 첫 광업권 등록에 이어 1934년 6월 일제 하에서 본격 채광에 나서 그동안 전남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성 적자 상태에 시달리는 한국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결정하면서 폐광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화순탄광의 폐광은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국가재정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산업자원부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석탄산업 재정 지원에 2835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조기 폐광조치로 국가재정 1조 원 가량을 절약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산했다. 산업자원부는 화순탄광에 이어 2024년 태백 장성탄광, 2025년 삼척 도계탄광을 폐광한다. 공영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 국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폐광 한 곳만 남게 된다. 화순탄광 폐광으로 실질 상태에 놓이게 될 탄광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화순탄광 근로자는 263명으로, 광부들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온도차’ 여전

광주시, 1조원 규모 지원방안에 전남 환영 대신 유감 전남 ‘1조원+α’·‘민간공항 통합 이전’ 미반영 실망

광주시의 통근 지원책 발표로 교착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전 지역 사업비 규모 등을 놓고 시·도 간 온도차가 여전한 군공항 이전 협의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관련기사 2면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군공항(전남)이전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으로 우선 지역개발사업지원금에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했던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하

겠었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날 강 시장이 발표한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이 아닌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으로 답을 했다. 이는 시·도 간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군공항 이전 협의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통 큰 지원책’을 기대했던 전남도는 지원사업비 규모를 비롯해 민간공항 통합 이전 방안이 누락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에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로 ‘1조원+알파(α)’를 요구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동시에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방침’을 발표문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7년 전인 2016년 용역에 의해 산출된 4508억원을 기준으로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제시한 것은 시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가 2022년도에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의 지원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광주시도 민간·군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도기 기자

‘나주 85mm’ 광주·전남 이틀째 장맛비 오늘까지 최대 120mm 예보...본격 장마에 긴장

장마(정제) 전선 영향권에 접어들어 광주·전남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나 이렇다 할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나주 85mm, 완도 금일 76mm, 장흥 관산 75mm, 여수 초도 72mm, 광주 남구 62.5mm, 보성 벌교·해남 복일 56mm, 광양 54.9mm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오전 3시간 30분부터 1시간 사이에만 나주에는 60.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대 광주 도심 일부(남구·조선대)에서도 시간당 45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렸다. 앞서 전남 오후부터 광주·전남에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호우특보가 차례로 내려졌다. 내년 광주비엔날레는... 2면 킬러문학 설 자리 없다 3면 지역업자 대출 사상 최대 4면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버스

맞춤제작

☎ 010-6265-0057